『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12
pp.257-275. ISSN : 1229-9618

그로테스크로 보는『속홍루몽』의 서사*

조민우**

【목 차】

1. 서론
2. 신체의 훼손과 배설
3. 색정에 대한 서사
4.『속홍루몽』의 의의

【초록】

본글은 1799년경 출판된 속서『속홍루몽』의 서사적 특징을 살펴 그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속홍루몽』은 그동안 “황당무계”, “중하층문인의 기호” 등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소설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이에 본글은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속서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다.『속홍루몽』은 대관원에서 비롯되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건과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을 동시에 배치하여 ‘정상’과 ‘비정상’, ‘윤리’와 ‘비윤리’적인 상황을 비교하였으며, 속서의 인물들은 신체가 훼손당하거나 배설 행위를 통해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즉, 속서의 기괴한 서사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정황이 있으며 일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로테스크 미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생명력을 낳는 효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속홍루몽』은 원소설『홍루몽』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글이지만, 속서의 저자는 저술 단계에서 원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속홍루몽』의 인쇄와 그로테스크 서사는 19세기의 청대 문화자본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한다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저술 기획을 시도했다는 사례이다.

【키워드】『속홍루몽』, 그로테스크, 바흐친,『홍루몽』, 치정

---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02301100001)
** 조민우. 동의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minwoo@deu.ac.kr)

1. 서론

『속홍루몽(續紅樓夢)』[1]은 1799년(가경4년) 포옹헌(抱甕軒) 서방에서 최초로 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1791년 인쇄본 『홍루몽』이 시장에 나온 지 불과 8년 만에 초간본이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2] 이후 『속홍루몽』은 1882년(광서8년) 경훈당(經訓堂)본, 1888년(광서14년) 선우당(善友堂)본 등 1949년 이전까지 최소 9개의 서로 다른 판본으로 인쇄되었다.[3]

원소설 『홍루몽』에 대한 풍부한 연구성과에 비해 『홍루몽』 속서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본글의 대상이 되는 『속홍루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다. 자오젠충(趙建忠)은 원소설 『홍루몽』이 수준 높은 인정(人情)소설임에 비해, 『속홍루몽』이 "신선과 귀신, 사람이 한 집에 섞여 있는(神仙人鬼, 混雜一堂)" 신마(神魔) 소설적 요소를 남용하였음을 단점으로 지적했다.[4] 최근 속서를 연구한 장윈(張雲) 역시 『속홍루몽』의 환상적 요소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며, 현실주의 소설 『홍루몽』의 원뜻이라 결코 할 수 없다."[5]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의 비평처럼, 『속홍루몽』은 원소설의 결을 따르기보다는 다소 통속적이거나 환상적인 서사가 다수 배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속서의 저자가 중하층 문인이며 속서의 표적독자가 사회의 중하층 문인이었을 것으로 귀결된다.[6] 이러한 비평은 속서가 원소설의 필법을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된 논의라는 점에서

---

1) 현존하는 청말 『홍루몽』 속서 중 『속홍루몽』으로 불리는 속서는 총 3종이 있다. 진자침(秦子忱)의 『속홍루몽』(총 30회, 1799년, 일명 『秦續紅樓夢』), 해포주인(海圃主人)의 『속홍루몽』(총 40회, 1805년, 일명 『海續紅樓夢』), 장요손(張曜孫)의 『속홍루몽』(20회 미완성 필사본, 연도 미상)이다. 이 중 본고는 진자침(秦子忱)의 『속홍루몽』을 대상으로 한다.

2) 1796년 첫 번째 속서 『후홍루몽(後紅樓夢)』이 인쇄되었고, 1799년경까지 『홍루복몽(紅樓復夢)』, 『의루중몽(綺樓重夢)』, 『속홍루몽(續紅樓夢)』 등 3권의 속서가 연이어 출판되었다.

3) 『속홍루몽』의 자세한 판본과 저자에 관한 정보는 최용철의 「『續紅樓夢』의 內容과 樂善齋本의飜譯樣相」 및 張雲의 『誰能煉石補蒼天——清代『紅樓夢』續書研究』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홍루몽』의 서문, 弁言, 凡例 등 파라텍스트에서 진자침(秦子忱)이 속서를 저술하였다는 기록과 저자가 썼다고 하는 弁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자의 본명이나 세세한 약력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凡例의 다소 과장된 부분은 인쇄업자가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용취안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진자침"의 본명은 진세충(秦世忠)임을 주장한다.(李勇泉, 「秦世忠即『續紅樓夢』作者秦子忱考」, 『紅樓夢學刊』, 제1집, 2018, p.308) 그런 점에서 본글은 저자의 행적을 추적하기보다는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또한 최근 중국 Baidu(百度) 백과사전에는 上海辭書出版社에 소장된 1798년본 『속홍루몽』이 있다고 하나 이는 원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서 불분명하다.

4) 趙建忠, 「紅樓夢續書的原流嬗變及其研究」, 『紅樓夢學刊』, 제4집, 1992, p.332.

5) "可謂荒謬無稽, 絶難說是現實主義小說『紅樓夢』的筆意." (張雲, 『誰能煉石補蒼天——清代『紅樓夢』續書研究』, 中華書局, 2013, p.103.)

6) 胡衍南, 「論『紅樓夢』早期續書的承衍與改造」, 『國文學報』, 제51기, p.197.

그 전제에 대해서 재토의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글은 “중하층 문인”의 서사로 비판받는『속홍루몽』을 대상으로, 서사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그리고 통속적인 요소들을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구명해보고자 한다.

그로테스크는 어원적으로 이태리어 grottesca, 즉 동굴(Grotte)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15세기에는 무언가 두렵고 오싹한 것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장식물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그로테스크는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와 미하일 바흐친(M. Bakhtin) 두 명의 이론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받는다. 볼프강 카이저는 그로테스크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을 거두어내고 공포에 결합한 웃음의 성질을 그로테스크의 본질로 제시하였고, 미하일 바흐친은 공포가 배제된 순수 웃음을 그로테스크 미학의 본질로 제시하였다.[7] 이후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은 두 이론 및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그로테스크의 주요 특징으로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한 것”, “양면성이 공존하는 비정상” 등을 제시하였다.[8]『속홍루몽』의 통속적, 환상적 서사에서 느끼는 독자의 부정적인 비평은 상술한 그로테스크의 특징인 “부조화”, “양면성”, “비정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동아시아 고대 서사작품을 살펴보면 내용이 기괴하거나 독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 지괴소설, 당대 돈황문학, 명말청초『우초신지(虞初新志)』등의 기괴하거나 폭력적인 서사에 대해서 그로테스크를 활용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9] 특히 김지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지괴소설의 기괴함과 그로테스크의 진정한 의미는 왜곡되고 거꾸로 된 시선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해내고 인간의 정신 내면에 있는 여러 욕구와 본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10] 또한 국문학에서도 설화,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다루며 “그로테스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1] 정환국은 19세기「변강쇠가」,「장끼전」,「덴동어미화전가」,「노처녀가(2)」등 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한 성격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위계질서에 대한 비틀기를 아주

7) 김예경,「그로테스크 미학」,『영상문화』38호, 2021, p.21, p.28 참조.
8) 필립 톰슨, 김영무 역,『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37.
9) 김지선,「志怪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중국소설논총』, 22집, 2005. 유승현,「돈황강창의 민중적 웃음」,『중국소설논총』, 48집, 2016. 정민경,「‘奇’에 미치다 - 『虞初新志』에 보이는 명말청초 문인들의 奇에 대한 양상」,『중국소설논총』, 50집, 2016.
10) 김지선,「志怪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중국소설논총』, 22집, 2005, pp.79-80.
11) 정환국,「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한국문학연구』, 36집, 2009. 서유석,「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적 성향과 그 미학」,『한국고전연구』, 23, 2011. 김준희,「「여우누이」설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와 그 의미」,『한국고전연구』, 57, 2022.

불편하게 수행함으로써 부조화를 극대화하였다고 평하였다.[12)]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로테스크 혹은 기괴함은 『속홍루몽』만의 고유함이 아니라 중국소설이 발전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요소이다. 작품 간의 차별점에 대해서 『우초신지』의 기이함을 시대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설명한 정민경의 지적을 참조할 수 있다. "명말청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초신지』에서 기이함은 (기존소설과 달리) 나라 잃은 슬픔과 결합되어 독특하면서도 괴기스럽기까지 한 특징으로 표현되었고 문인들이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탓하는 자학적 심리와도 연결되었다."[13)] 『속홍루몽』의 그로테스크적 서사 역시 위진남북조의 지괴소설, 명청시대 통속소설 등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괴함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인기소설 『홍루몽』의 속서로서 원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후술하겠지만, 『속홍루몽』의 그로테스크적 서사는 원소설 『홍루몽』의 세련되고 우아한 인물들의 행위와 겹쳐 읽게 되면서 작품 내에서 독특한 대비가 이루어진다. 속서의 그로테스크 서사는 기존 『홍루몽』 서사와 부조화를 이루면서 원소설의 윤리적 위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속홍루몽』에 대해 비평가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속서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만약 그 불편함이 속서의 기획 의도라면 속서에서 드러나는 그로테스크적 성향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신체의 훼손과 배설

주지하다시피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은 15세기 로마에서 발견된 지하의 동굴유적(고대 네로황제의 궁궐)의 기괴한 괴물의 육체적 형상과 연관되어 있다. 바흐친 역시 라블레의 문학을 설명하면서 작품 속 물질적, 육체적인 이미지를 탐구하며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격하시키는 것, 즉, 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물질과 육체적 차원으로, 불가분의 통일체인 대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14)]이라는 표현처럼 그로테스크적 표현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변형 혹은 배설, 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

12)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집, 2009, p.282 참조. 다만 정환국은 그로테스크 미학,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 19세기 국문학과 완전히 등치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13) 정민경, 「'奇'에 미치다 - 『虞初新志』에 보이는 명말청초 문인들의 奇에 대한 양상」, 『중국소설논총』, 50집, 2016, p.106.

14) 미하일 바흐친 저,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p.48.

『속홍루몽』에는 신체에 대한 훼손, 배설 등의 서사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중국 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속홍루몽』과 비교해야 할 대상은 원소설『홍루몽』과 기타 속서이다. 원소설 및 기타 속서는 대개 현실적이고, 귀족문화를 부각하는 경향을 강조, 계승한다. 반면『속홍루몽』에서 보여주는 신체에 대한 서사는『홍루몽』속서라는 계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손소조(孫紹祖)의 훼손되는 신체

『홍루몽』에서 가영춘은 가보옥의 사촌 누이로 가씨 집안의 가세가 무너지자, 손소조(孫紹祖)라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남자에게 팔려간다. 주색잡기에 빠진 손소조는 갖은 방법으로 유약한 가영춘을 괴롭히고, 결국 가영춘은 시집 간 지 1년 후 병사하게 된다.

『속홍루몽』에서 가영춘과 손소조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다. 먼저 가영춘을 부활시키고, 후에 손소조를 염라대왕 앞에 압송한다. 소설의 제20회에서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돼지 입에 늑대 이빨을 가진 악귀가 올라오더니, 시퍼런 우이첨도를 한 자루 손에 들고서 손소조 면전까지 걸어와서 휭휭 휘둘렀다. 손소조는 놀라 구슬프게 외쳤다. “두 신선님, 이제 다시는 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악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칼에 손소조의 배를 푹 갈라 열었다. 손을 넣더니, 피가 철철 흐르는 오장육부를 꺼냈다. 재판장 뒤의 구경꾼들은 깜짝 놀라서 낯빛이 어두워지고, 더러는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더러는 굳어서 말 한 마디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모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놀래서 큰 소리를 내었다.
>
> 한바탕 소동 가운데, 스님과 도사가 자리에서 외쳤다. “빨리 맑은 물 한 대야 가져오거라! 그의 검은 내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내가 지닌 이 약 가루를 그의 배 안에 뿌린 다음, 다시 오장육부를 그의 배 안으로 정리해 넣도록 하라!”[15]

---

15) 只見上來了一個豬嘴獠牙的惡鬼, 手持一柄明晃晃的牛耳尖刀, 走至孫紹祖的面前, 晃了一晃, 嚇得孫紹祖忙哀告道: “二位仙師, 我再也不敢任性了.” 只見那惡鬼不容分說, 哧的一刀將孫紹祖的肚子劃開, 伸進手去, 將一副血淋淋的五臟掏了出來.嚇得二堂背後的眾人面目失色, 也有渾身打戰的, 也有說不出話來的, 也有叫爹爹媽媽的, 也有說唬死我了的.正在忙亂, 又聽僧, 道在座上喝道: “快取一大盆清水來, 把他這副黑心亂肝拿去給我淘洗乾淨, 將我這種藥末兒撒在他心孔之內, 仍舊整理妥當裝在他腔子裡.”(『續紅樓夢』제20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4, pp.16B-17A)

<그림1>『속홍루몽』, 제20회 삽화

소설은 손소조가 당하는 형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배가 갈리고, 내장이 꺼내지는 형벌 묘사는 분명 원소설『홍루몽』의 필법과 사뭇 다르다.『홍루몽』의 맥락에서는 가문의 권위나 돈의 힘 앞에서 손소조가 굴복하거나, 혹은 결혼을 물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속서는 잔인한 서사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둔다. 배를 갈라 장기를 씻고 약 가루를 뿌려 사람의 검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속홍루몽』의 해결법은 잔인하지만 유머도 있다. 이 장면은 사실『서유기』,『요재지이』의 내용과 유사하다. 특히『서유기』제46회에서 손오공은 차지국 녹력대선(鹿力大仙)과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시합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손오공은 건들건들 사형장으로 걸어가더니, 기둥에 몸을 걸치고 옷을 풀어 배를 보였다. 칼잡이는 밧줄 하나로 그의 어깨를 묶고, 다른 하나로 그의 다리를 묶었다. 우이단도를 휘두르더니, 배를 단번에 그어서 구멍을 내었다. 손오공은 양손으로 배를 열더니 오장육부를 꺼내어 하나하나 오랜 시간을 들여 깨끗이 닦아내더니 다시 굴곡에 맞춰서 넣었다.[16]

16) 行者搖搖擺擺, 徑至殺場.將身靠著大樁, 解開衣帶, 露出肚腹.那劊子手將一條繩套在他膊項上, 一條繩紮住他腿足, 把一口牛耳短刀幌一幌, 著肚皮下一割, 搠個窟窿.這行者雙手爬開肚腹, 拿出腸臟來, 一條條理夠多時, 依然安在裡面, 照舊盤曲. (『李卓吾先生批評西遊記』, 제46회, 베이징대학교도서관장본, p.11A)

우이첨도(牛耳尖刀)와 우이단도, 내장을 깨끗이 씻고 다시 넣는 행위 등 서사적 소재를 통해 우리는『속홍루몽』이『서유기』 제46회의 장면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의『속홍루몽』을 읽는 독자들도 무난히 이 장면을『서유기』와 겹쳐 읽어냈을 것이라 생각된다.『서유기』의 내용을 아는 속서의 독자들은 손소조의 그로테스크한 형벌에서 잔인함과 동시에 손오공식의 유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학자들이 비판하는『속홍루몽』의 "신마(神魔) 소설적 요소"는 이렇게『서유기』의 필법을 빌리는 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로 인해 소설의 현실주의적 요소가 훼손되었는지 따져 볼 만하다. 손소조의 잘리고, 파편화되는 신체는 전형적인 그로테스크 서사로 볼 수 있다. 제20회의 강렬한 잔인함 가운데 웃음과 유머가 있고, 군중들이 지켜보는 의식 가운데 손소조라는 인물은 기존의 폭력적인 성격을 버리고 가정적인 인물로 변화한다.

2) 우이저의 부활과 배설

우이저(尤二姐)는『홍루몽』의 주변 인물 중 하나로, 가난한 집안의 빼어난 미모를 가진 순진한 여성이다. 원소설『홍루몽』에서 우이저는 가련의 비겁함과 왕희봉의 악랄함을 드러내는 소재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왕희봉의 남편 가련이 왕희봉 몰래 우이저를 첩으로 삼는다. 정실 부인 왕희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이저를 괴롭히고, 내성적인 우이저는 반항 한 번 못하고 금을 삼켜 자살한다. 이후 우이저는 더 이상 원소설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비해,『속홍루몽』은 우이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속서에서 우이저는 부활하고, 왕희봉과 화해하여 가련의 첩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속서의 우이저 부활의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 탐춘이 웃으며 말했다. "큰일 하나 있었지요. 말하자면 웃음이 나는 일이에요. 우이저가 어제 정오(오시)에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그녀에게 몇 마디 건네는 사이에, 우이저가 갑자기 이를 깨물며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러더니 뒷간에 가서 혼자 쭈그리겠다고 말했지요. 제 생각으로 그녀는 이제 막 부활했으니 어찌 혼자 걸을 힘이 있겠어요. 하녀들을 시켜서 요강을 가져오라 하고, 주변에 재를 뿌리고 여러 명이 부축해서 요강 위에 쭈그리게 했지요. 서너 시간은 족히 보냈어요. 힘들어서 얼굴이 온통 빨개졌지만, 여전히 쌀 수가 없었어요. 사상운 아가씨 말로는 아마도 대변이 굳어져서 그렇다고, 그녀를 위해 대황망초탕(大黃芒硝湯)을 달여 마신 뒤에 시도해보라고 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부활한 허약한 몸으로 그런 강한 약을 쓴다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우리 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우이저가 산이 흔들릴 정도

의 방귀를 뀌더니 요강에서 '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상운 아가씨가 실성할 정도로 웃게 되었지요. 우이저는 그제서야 배가 시원해졌다고 하길래, 요강을 꺼내들어 보니, 대변은 하나도 없고, 누런 빛이 나는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경악하는 사이, 우이저가 알려주기를, 자신이 그날 죽을 때 금을 삼키고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모두가 듣고서 웃음을 쏟아내었다.[17]

『홍루몽』의 필법으로 우이저의 부활을 상상한다면, 청순가련한 우이저는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을 것이다. 아마도 기침 몇 번으로 금을 입에서 뱉는다거나, 가보옥처럼 금을 입에 머금고 부활하거나, 아니면 금이 어떤 이유로든 몸 밖으로 자연히 떨어져 나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속서에서 보이는 우이저의 행동은 "가련한 미녀"의 전형적 서사와는 매우 다르다. 뭇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강 위에 쭈그린 모습, 산이 흔들릴 정도의 방귀 소리, "깡"하는 소리와 함께 항문에서 배설되는 금덩어리는 부활의 신성함과는 거리가 먼 그로테스크 서사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성스러운 부활의 장면에서 배설 행위를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는 『속홍루몽』의 저자는 저속하다 못해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이저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소조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기괴한 그로테스크적 묘사에는 웃음과 정화가 있다. 우이저의 부활을 목도한 군중들은 크게 웃으며, 우이저는 더러운 배설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3. 색정에 대한 서사

『속홍루몽』은 원소설 『홍루몽』에 비해 색정에 대한 서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어쩌면 "기괴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음란하다"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음란함은 그로테스크인가?"에 대한 질문이 수반된다. 카이저의 지적처럼, 그로테스크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세계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한다면[18] 원소설 『홍루몽』의 질서있는 공간을 그리워하는 독자에게는 『속홍루몽』 읽기

17) 探春笑道: "可不是呢.說來還是個大笑話兒, 尤二姐姐昨兒午時還魂之後, 我們只問了他兩三句話的工夫上, 他就齜牙咧嘴的嚷肚裡疼起來了, 就要往後去蹲一蹲. 我想他是才還了魂的人, 如何下得地呢, 教丫頭們拿過尿盆子來, 墊了灰, 大家扶著他蹲在上頭, 鬧了足有兩個時辰, 掙得脖子臉通紅, 總撒不下來. 史大妹妹就說想是凝滯住了, 給他熬上些大黃芒硝湯來喝了行動行動. 我說他是才還了魂的, 身子虛弱極了, 那裡用得狼虎藥呢.我們倆人正較量, 忽聽他猛然放了個山響的大屁, 打的尿盆子"當"的響了一聲, 招得雲兒就笑的不得活了, 他才說覺得肚裡鬆快了好些. 拿出盆子來看時, 連一點兒糞也沒有, 竟是黃澄澄的一塊金子.我們正都詫異, 他才告訴我們說, 他當日原是吃了金子死的." 眾人聽畢都笑起來. (『續紅樓夢』, 제18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4, p.8A)

가 반감으로 가득한 불편한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톰슨의 그로테스크가 “육체 및 육체적인 무절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를 참조한다면[19] 성에 대한 무절제한 욕구,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애정행각은 그로테스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 무절제한 성욕: 시간(屍姦), 동성애, 불륜

『속홍루몽』의 제17회에서 가씨 집안 사람들은 혼이 나가 시체처럼 누워있는 가보옥과 유상련을 발견한다. 당시 가보옥과 유상련은 죽은 임대옥을 찾기 위해 육신을 버리고 명계(冥界)와 선계(仙界)를 돌아다니는 상태였다.[20] 이때 가보옥의 육체는 자신의 어머니 왕부인과 아내 설보차의 관심 속에 보호받지만, 유상련의 육체는 정욕의 대상이 되었다.

> 무더운 날씨에 유상련이 보자기를 베게 삼아 바르게 누워있으니 설반이 만져도 움직이지 않고, 물어도 답이 없었다. 유상련의 몸이 붉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것이, 만지면 물이 나올 것 같이 살갗이 부드러웠다. 설반은 그 몸을 보면서 어제 아내 보섬의 말과 같이 이전 유상련에 대한 사랑, 음란한 욕정이 다시 생겨났다. 설반은 슬쩍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녀석 같으니! 그때 형님이 너와 놀아 보려고 수작 좀 부렸더니, 네 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저 갈대 연못의 더러운 흙탕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지. 이번에는 너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중략) 보섬이 몰래 생각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미남이 있단 말인가! 이 모습은 또 우리 집 가보옥 도련님보다 더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해졌으니, 단번에 유상련을 삼켜버렸으면 하였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옆에 가서 그를 만질 수 없었다.[21]

속서는 혼이 나간 유상련의 육체를 탐하는 인물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

18)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p.139.
19) 필립 톰슨, 김영무 역,『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77.
20) 이러한 서사는 백거이(白居易)의『장한가(長恨歌)』에서 당현종이 선녀가 된 양귀비를 찾기 위해 몸을 버리고 혼만 빼내어 봉래산(蓬萊山)까지 날아가는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1) 天氣炎熱, 只見湘蓮枕著包袱, 合衣仰臥, 推之不動, 問之不答, 那臉兒上有紅似白的, 嫩的真要掐出水來.薛蟠見了, 不覺想起昨夜寶蟾之言, 觸起前情, 不覺淫心頓熾, 暗笑道: “我把你這個小東西兒, 那會子哥哥和你玩一玩兒, 你就那樣的利害, 打了我還不算, 還教我喝那葦塘裡的臭水. 這會子我可看你往那裡跑, 這可該由著我了罷.” 說著, 便將兩上小廝攆了出去, 將湘蓮輕輕的抱了起來, 先替他脫了上身的衣服, 仍舊放倒, 又替他拉了鞋襪. (중략) 暗想道: “世上竟有這樣的美男子! 這個模樣兒又在我們二爺的上一層了.” 想的出了神, 恨不能一口涼水將湘蓮咽在肚裡, 只恨人多, 不能走到跟前摸他一摸. (『續紅樓夢』, 제17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4, p.2A)

설반과 보섬은 각각 음욕이 강한 남성과 여성인물로서 항거불능 상태인 유상련의 육체를 보며 남색과 여색이라는 금도를 벗어난 욕정을 품는다. 특히 소설에서 설반과 보섬은 부부의 연을 맺고 있었으니 두 사람이 품은 유상련에 대한 욕정은 일반적인 윤리에서 벗어나는 저속한 불륜이자, 비평가들에게 불편함을 안길만한 그로테스크적 표현이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의 소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속서의 저자가 남색과 여색이라는 어리석고 추한 욕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는 이유는 같은 회 가보옥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넋이 나간 육체가 받는 대접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 보차는 가정, 가련이 떠나자 가보옥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서 보옥을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그의 이마를 만지더니 왕부인에게 말했다. "어머님은 마음 놓으세요.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몸은 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보옥의 사부님이 사람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으니 다른 염려는 더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 내 생각에 요즘 날씨가 무척 덥구나, 보차 너는 나랑 보옥의 옷을 벗겨야겠다. 또 이불을 잘 덮어주고 창문의 죽렴을 모두 내리자. 더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추운 것도 문제야." 보차가 듣고서는 침대로 나가가 보옥의 몸을 일으켜서 꼭 껴안았다. 보옥의 몸은 부드러운 솜 같았다. 그사이 왕부인은 얼른 보옥의 옷 단추를 풀어냈다.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고이 덮어주었다. 또 왕부인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마저 벗기고 배를 보호하는 속옷(兜肚兒) 하나만 남겼다. (중략) 얼굴은 산사람처럼 붉은 부분은 붉고 흰 부분은 희었다. 잘 누워있는 보옥의 모습을 보며 왕부인은 겨우 마음을 놓았다. 곧 설보차의 어머니, 사상운, 가탐춘, 가석춘, 이환, 평아, 교저 등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모두 침대 곁으로 가서 자세히 살폈는데, 기뻐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가득하여 서로 웅성대니 매우 시끄러웠다.[22]

속서는 저속한 이야기를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물 계층의 경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가보옥과 유상련의 혼

---

22) 寶釵見賈政, 賈璉去了, 這才走到寶玉的牀前, 仔細看了一看, 用手在他額上摸了一摸, 乃向王夫人道: "太太放心, 不用盡自哭了.這是他魂未歸殼, 所以如此.他師父既然差人送了來, 想來再也不至另有他虞的." 王夫人聽了點點頭兒, 道: "我的兒, 我想怪熱的天氣, 你把他這和尚的衣服都替他脫下來.蓋上裌被, 把窗戶上的竹簾子都放下來.雖不可受暑, 亦不可受寒." 寶釵聽了, 便挨上牀去, 將寶玉扶了起來, 攬在懷內, 只覺他身軟如綿.王夫人忙替他解鈕脫衣, 拉去了鞋襪, 便蓋上了裌被. 王夫人又伸手在被內替他褪了小衣, 只留下貼身穿的兜肚兒. (중략) 臉兒上仍舊紅是紅白是白的. 王夫人看了, 這才喜歡起來了. 剛然安置妥當, 只見薛姨媽, 史湘雲, 探春, 惜春, 李紈, 平兒, 巧姐等都來了.大家齊到牀頭仔細看了一看, 也有歡喜的, 也有傷心的, 滿屋裡紛紛談講, 十分熱鬧. (『續紅樓夢』, 제17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4, p.1A)

없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는 두 인물의 신분적 경계를 가르고 있다. 똑같이 승복을 입고, 똑같이 무더운 날씨 속에 누워있지만, 두 인물은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유상련의 육신이 남색과 여색이라는 성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가보옥의 육신은 모성애와 아내의 정이라는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왕부인와 설보차가 가보옥의 옷을 벗기는 장면은 가족의 정이 남녀의 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한 서사로 보인다.

저자는 두 여인이 어떻게 가보옥의 옷을 벗기는지 다소 과하게 묘사한다. 먼저 무더운 날 가보옥의 건강을 염려한 아내 설보차는 주렴을 내려 외부와 방을 차단하고 옷을 벗기기 쉽게 가보옥을 품에 안는다. 다음으로 어머니 왕부인이 아들의 나체를 함부로 보지 않으려고 이불 속에서 보옥의 속옷을 조심스레 벗긴다. 유상련 서사에서 유상련의 나체를 탐하는 강렬한 성적 욕망이 강조된다면, 반대로 가보옥 서사에서 가보옥은 실제로 나체가 되지만, 옷을 벗기는 행위는 저속한 것이 아니라 성스럽고 절제되어 있다.

결국 두 인물의 유사하면서도 상반된 이야기에는 속서 저자의 의도성이 보인다. 이를 바흐친이 주장하는 소설의 “다중언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고급 장르/언어와 저급 장르/언어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바흐친이 제시하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소설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요소이다. 그는 소설의 본질을 다양한 문화가 녹아든 다중언어적(multi-languaged) 의식이라 규정하고,[23] 다양한 언어 간의 팽팽한 상호관심과 투쟁만이 저자와 독자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언어 바깥에 설 수 있고, 시간과 문화, 사회적 그룹의 경계가 명확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한다.[24] 바흐친의 “다중언어” 개념에서 두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립항은 지식인과 민중의 언어이다. 그는 지식인의 언어를 “과거성”을 기초로 하는 공식적인 성격의 고급 언어/장르라 칭하고, 반대로 민중의 언어를 “동시대성”을 재현하는 비공식적인 저급 언어/장르로 본다.[25]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바흐친은 민중 언어와 문화, “동시대성”을 재현하는 저급 언어/장르 활용의 용이성이 문학 장르 중 소설이 가진 장점이라 보고, 민중 언어의 핵심적 특징으로 “그로테스크적 리얼리즘”이라는 미학적 개념을 제시한다.

『속홍루몽』의 저자는 이를 문학적인 묘사로 완성해낸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보옥 관련 서사는 원소설의 정제된 필법을 연상하지만, 성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유상련 관련 서사는 기괴한 그로테스크적 기법을 사용한다.

---

23) 미하일 바흐친 저, 전승희 외 역,『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27.
24) 미하일 바흐친 저, 이덕형·최건영 역,『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pp.716-717 참조.
25) 미하일 바흐친 저, 전승희 외 역,『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p.35-39 참조.

제11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비가 그려진다. 원소설에서 죽은 왕희봉은 저승세계를 거닐다 우연히 이승의 가족을 볼 기회를 얻는다. 그녀가 이승을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원소설의 필법과 그로테스크한 서사가 교차한다.

> 왕희봉이 자세히 내려다보니, 저 멀리 저택이 하나 있어 영국부의 풍경이었다. 건물의 형세를 살펴 찾아보니 자신의 집의 창문이 반쯤 열려있고, 시녀 평아와 희봉의 딸 교저가 온돌 위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다. 희봉은 그 광경을 목도하니 마음이 저려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급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더 자세히 주변을 보니, 문득 남편 가련이 젊은 여인과 후원 침대에서 껴안고 거침없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더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다혼충(多渾蟲)의 아내이자, 남편이 죽고 가씨 집안 하인 포이(鮑二)에게 다시 시집 온 여인이었다. 왕희봉은 이런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두 눈이 검게 흐려지니 '아이고'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다.[26]

왕희봉은 두 장면을 목도한다. 하나는 심복 평아와 딸 교저의 모습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또 왕희봉은 자신의 남편 가련이 유부녀와 벌이는 불륜 현장을 보게 된다. 앞서 말한 가보옥, 유상련의 서사와 같이 속서의 저자는 왕희봉 서사에서도 성스러운 모성애를 추하고 세속적인 감정과 대비시키는 서사기교를 사용한다. 즉, 속서는 그로테스크적 서사를 아무런 원칙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속홍루몽』에 대한 "황당무계", "중하층 문인들의 기호"라는 비평에 반해, 속서는 그로테스크적 서사를 원소설 홍루몽의 필법의 대립항으로 배치하여, 매번 계층과 도덕의 경계를 나누고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아내 바꾸기

『홍루몽』에서 풍연은 향릉이란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동성애적 취향마저 버린 인물이다. 연이어 향릉의 미모에 반한 부잣집 도련님 설반은 풍연을 살해하고 향릉을 차지한다. 원소설에서 풍연은 억울하게 살해당했지만 『속홍루몽』에서 풍연은 여전히 저승세계의 하급관리 "서판" 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마침 설반의 아내 하금계도 죽어서 저승세계의 기녀가 되었다. 풍연은 하금계가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실부인으로 삼고 싶었고, 이 상황을 지켜본 가주는 이 결혼으로 설반과 풍연의 송사를

---

26) 仔細望去, 忽見一帶樓台房舍, 果是榮國府的景況. 順著房子的形勢望去, 只見自己的屋內紗窗半啟, 平兒和巧姐都在炕上坐著作針線活計. 鳳姐見了, 由不得一陣心酸, 眼中流下淚來, 忙用手帕擦淚. 再細看時, 忽見賈璉和一個年輕的婦人, 在後院春凳上摟抱著無所不至的玩耍. 仔細望去, 卻是多渾蟲的老婆新嫁了鮑二的. 於是, 鳳姐見了這般光景, 心中一氣, 兩眼發黑, "噯喲"了一聲, 栽倒在地. (『續紅樓夢』, 제11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2, p.25A)

마무리할 수 있겠다며 저승의 판관에게 동의를 구한다.

> 가주가 듣고서 급히 일어나서 웃으며 말했다. “풍 서판께서는 본래 하금계가 설반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망호정에서 저를 데리고 유람하면서 이 아녀자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했으니 모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 가보옥이 오고 나서, 그녀가 설반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녀는 생전에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으니, 설씨 집안이 그녀를 다시 찾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금계는 이미 풍연 서판과 흰 쌀이 익은 밥이 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린 제가 감히 매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요청합니다. 차라리 이 여인을 풍연에게 시집 보내고, 염라대왕에게 고하여서, 설반이 풍연에게 진 목숨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양측이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매형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27]

속서는 인물들의 원한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화되기 위해서 그로테스크한 해결법을 제시한다. 아내를 내주고 목숨값을 상환하는 서사는 당시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을 듣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목숨보다 앞서는 성욕, 개가(改嫁)에 대한 노골적인 허용 등은 당시 사회에서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저속하고 불편한 장면이지만 속서의 서사 속에서는 저승이라는 공간을 이유로 기존의 위계질서를 비틀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소위 “아내 바꾸기”라는 비윤리적인 그로테스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3) 사통(私通)에 대한 언급

앞서 말한 사례들은 “성욕”의 무절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그로테스크적 성향이 있다 할 수 있지만, 본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통”은 보다 윤리적인 면에 초점을 둔 사례이다. 다시 말해『속홍루몽』에서 사통하는 노골적인 장면이나 성애묘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하고 원소설에서도 생략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통에 대해서 속서는 동정의 태도를 표한다.

『홍루몽』의 주변 인물 중에는 사통(私通) 관계인 연인들이 있다.[28] 원소설의 사통

---

27) 賈珠聽了忙站起來, 笑道: “馮書辦在先原不知道是薛蟠的妻子, 今日在望湖亭請姪兒去遊玩, 將此婦喚來彈唱, 也多不認得.後來還是姪兒的兄弟他們到了, 才認得他本是薛蟠的媳婦. 姪兒想, 他生前為婦不貞, 薛家還要他作什麼呢? 況且他與馮淵已經是生米做成熟飯的了. 莫若求姑老爺施恩, 就將此婦配了馮淵, 稟明了閻王, 以抵薛蟠償命之罪, 倒也兩全其美. 不知姑老爺意下如何?” (『續紅樓夢』, 제14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3, p.12A)

28) 본절에서 언급되는 소설 속 남녀 연인 중 배명과 만아는 원소설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가장과 영관, 가운과 소홍은 은근한 정이 통한 사이로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간혹 기준에 따라서 가장과 영관, 가운과 소홍의 관계가 사통이라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은 대개 가씨 집안의 먼 사촌, 하인이 주인의 허락 없이 대관원 시녀와 내통하여 연인 관계를 맺는 형식이다. 이들의 사통은 대개 대관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도화선으로만 기능했고, 사통 이후 연인들의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원소설은 그들의 사통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속홍루몽』은 이들을 모두 소환해내어 인연을 다시 맺어준다.

이는 『속홍루몽』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19세기에 출판된 『홍루몽』 속서에서는 대개 소설의 주인공, 즉 가보옥과 임대옥, 설보차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다. 반면 『속홍루몽』은 특이하게도 소설의 모든 애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심지어 원소설에서 짧게 등장하고 죽었던 인물들도 연인 관계가 있다면 부활하고, 다시 인연을 맺는다.

> 가보옥이 말했다. "인생의 인연은 모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 이향원에 영관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촌 가장(賈薔)과 인연이 있습니다. 희봉 아가씨의 시녀 소홍이는 사촌 가운(賈芸)과 인연이 있습니다. 동쪽 저택 큰어머니의 시녀 중 만아라는 아이는 우리집 하인 배명(焙茗)과 인연이 있습니다.[29]

여기서 가장과 영관, 가운과 소홍, 배명과 만아는 모두 원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불순한 사랑, 즉 사통으로 낙인찍힌 남녀들이다. 전통사회에서 사통의 반사회적인 의의를 고려한다면, 사통에 대한 언급과 관용의 서사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당시 비평가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시간(屍姦), 동성애, 아내 바꾸기 사례는 무절제한 색정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도덕률에 의해 좌우되는 사건이다. 반면 사통은 주인과 노비라는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금기라 할 수 있다. 속서가 그리는 남녀의 애정 서사의 불편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즉 전통사회의 개인적인 도덕률과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이들의 애정을 모두 포용하는 속서의 태도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고 그로테스크 서사의 효과가 될 수 있다.

있겠지만 본글에서는 사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원소설 내에서 연인들의 정이 상당히 깊었다고 묘사되었고, 두 번째로 청대 사회에서 기녀나 배우(優伶)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남자와 정이 통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이다.

29) 人生的情緣都有個分定: 當日梨香院有個齡官, 他和薔兒有情緣之分; 我鳳姐姐的丫頭小紅, 和芸兒有情緣之分; 東府大嫂子的丫頭名字叫個萬兒, 和焙茗有情緣之分. (『續紅樓夢』, 제22회,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약1920년, 권5, p.3B)

4.『속홍루몽』의 의의

1) 원저 주제의 계승과 대상의 확장

본글은『속홍루몽』서사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훼손, 배설, 무절제하거나 비윤리적인 애정 묘사 등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적 성향을 탐색하였다. 그렇지만『속홍루몽』의 서사가 그로테스크 개념과 일치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김종철,[30] 정환국[31]은 앞서 중세 시대를 표본으로 하는 바흐친의 개념이 19세기 국문학 작품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속서는 대관원에서 비롯되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건과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을 동시에 배치하여 '정상'과 '비정상', '윤리'와 '비윤리'적인 상황을 비교하였으며, 속서의 인물들은 신체가 훼손당하거나 배설 행위를 통해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즉, 속서의 기괴한 서사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정황이 있으며 일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로테스크 미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생명력을 낳는 효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32]

『속홍루몽』이 기괴한 서사를 통해 원소설의 위계질서를 드러내고, 인물의 정화를 수행하는 이유는『홍루몽』에 대한 새로운 비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했다시피 저자는 다른 속서와 달리 원소설의 사소한 애정까지 관심을 보인다. 가보옥의 사랑 외에도 부부의 외도, 주인집의 허락 없는 남녀의 사통(私通) 등 원소설『홍루몽』에서 시시콜콜한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남녀 사랑 이야기에 대해 하나하나 반응하고 각각의 해결법을 제시한다. 이는 원소설『홍루몽』의 의도와 다르지만,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며, 원소설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 할 수 있다.

『속홍루몽』은 제30회에서 이 모든 사랑의 남녀를 "치정(癡情)", 즉 "정에 미친 이"라고 칭한다. 명청시대에 들어와서 문학작품에서 "치정"이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단어로 사용되었지만,[33] 속서의 저자는 "치정"의 범위에 대해 남다른 견해가 있다. 기존

---

30) 김종철,「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 괴기미 추구와 관련하여」,『판소리연구』, 4집, 1993, pp.275-316.

31) 정환국,「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한국문학연구』, 36집, 2009, p.282.

32) 그로테스크 미학의 대표적인 효과로써, 최진석은 "생성(stanoblenie, becoming, 生成)을, 김예경은 파생성(破生性)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시하는 개념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명력을 읽어내고 있다. 각각 최진석,「생성, 또는 인간을 넘어선 민중: 미하일 바흐친의 비인간주의 존재론」,『러시아연구』, 제24호, 2014 및 김예경,「그로테스크, 파생성(破生性)의 미학」,『기호학연구』, 제72호, 2022 참조.

33) 최병규는 "치정"의 명청시대의 의의로 '어린아이의 마음(赤子之心)'이라 지적하고, 이는 명말 이탁오의『동심설(童心說)』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최병규,「중국문학 속의 치정의 의의와 가치

『홍루몽』의 독법에서는 “치정”에 층위가 있었다. 『홍루몽』의 독자들은 대개 가보옥과 임대옥의 “치정”을 숭고하면서도 낭만적인 사랑이라 추앙하는 반면, 가련과 다혼충(多渾蟲)의 아내의 “치정”에 대해서 저속하고 음란한 사랑으로 비하하였다. 그러나 『속홍루몽』의 독법은 모든 남녀의 사랑을 같은 “치정”으로 본다. 즉, 『속홍루몽』의 저자는 가보옥과 임대옥의 사랑도, 가련과 다혼충(多渾蟲)의 아내와의 불륜도, 배명과 만아의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은 풋사랑도 모두 “치정”이란 감정 아래 “정화”해야 하는 사건으로 본다.

『홍루몽』 독법의 변화를 암시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속홍루몽』의 “오진(悟眞)”이다. 원소설의 핵심 키워드가 “경환”이라면, 『속홍루몽』의 마지막 회, 제30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오진”은 속서의 핵심 키워드이다. 태허환경의 주인 경환선녀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승진하고, 태허환경의 후계자로 비구니 묘옥이 지명된다. 이때 묘옥은 경환선녀의 뒤를 이어 “오진선고(悟眞仙姑)”라 불리게 되니 “오진”이 “경환”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환”의 대상이 가보옥 한 사람이라면, “오진”의 대상은 “치정”에 빠진 모든 남녀들이다. 원소설에서 태허환경에 초대받은 이는 가보옥 한 사람이었다. 이는 원소설에서 “경환(헛된 것에 대한 경고)”이 가보옥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음을 암시한다. 반면 『속홍루몽』 제30회에서는 우이저 등을 포함한 15명의 여성 인물들이 태허환경에 초대받는다. 이는 “오진(진실을 깨달음)”의 대상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속홍루몽』의 저자는 기존의 “대관원”, “가보옥”을 중시하는 전통적 독법에서 벗어나, 모든 층위의 사랑을 “치정”으로 보고, 모든 이들의 사랑을 “정화”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홍루몽』에 대한 소위 탈중심적인 독법이 1799년에 이미 쓰여진 셈이다.

『속홍루몽』은 그동안 “황당무계”, “중하층문인의 기호” 등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소설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이에 본글은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속서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다. 『속홍루몽』은 무절제한 혹은 비윤리적인 애정(치정)을 “정화”하기 위해 그로테스크 서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대 사회에서 계층, 도덕, 종교의 상하 층위를 극명하게 그려내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속서는 원소설의 필법과 그로테스크적 서사를 같은 사건에 대비시키며 배치하며, 그로테스크적 서사로 인해 각 인물의 성격은 “오진”이라는 소설의 주제의식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속서의 서사는 “중하층 문인의 기호”가 아닌 의도된 설정이며, 저자가 제시하는 환상적인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속홍루몽』은 분명 원소설 『홍루몽』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글이지만, 속서의 저자는 저술 단계에서 자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2집, 2018, p.18.)

신만의 기획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행에 대한 19세기 문화자본의 저술 기획

다음으로『속홍루몽』의 19세기 독서 시장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명청대의 독서 시장은 출판업의 발전, 시장 경제의 발달 등 외부적 조건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독서 시장의 성장은 글쓰기의 주체가 문인 개인에서 문화자본이란 영리적 단체로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34] 매클라렌(Ann E. MacLaren), 헤겔(Robert E. Hegel), 브로카우(Cynthia J. Brokaw) 등은 연구에서 해당 시기 독서 시장에서 문화자본이 주도하는 다양한 소설 판매 전략을 논하였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당시 문화자본이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인기 소설을 그대로 재인쇄하거나 인기 장르의 소설을 기획하여 출판하는 방법이었다.[35]

이를 고려한다면『속홍루몽』의 출판은 원소설의 재인쇄나 인기 장르의 기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19세기 문화자본이 수행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속홍루몽』은 1949년까지 총 9번 인쇄되었으며 이는 19세기『홍루몽』관련 10여종의 속서에서 세 번째로 많은 횟수이다.[36] 즉 문화자본의 시도가 단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대 독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속홍루몽』의 출판은 문화자본의 합리적인 의도와 기획이 있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속홍루몽』의 그로테스크한 서사는 19세기 문화자본이 수행한 새로운 시도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속서는 그로테스크한 서사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원소설의 내용을 비틀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기존의 독자들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독자를 포섭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속홍루몽』은 많은 이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이후 비평가들에게 백안시당했지만 본 글은『속홍루몽』의 출판 후 세간의 평가보다 출판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속홍루몽』의 인쇄와 그로테스크 서사는 19세기의 청대 문화자본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한다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저술 기획을 시도했다는 사례이다.

본글의『속홍루몽』그로테스크 성향의 연구는 19세기 청대 독서 시장에 대한 하나

---

34) 서경호,『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p.314 참조.

35) 이에 관해서 최수경,「19세기 前期 중국 通俗小說 출판의 양상과 소설 독자에 관한 연구」,『중국소설논총』, 제37집, 2012를 참조할 수 있다.

36) 1949년까지『후홍루몽』은 총 12종의 판본을,『홍루몽보』는 총 10종의 판본이 인쇄되었다. 나머지 속서의 판본은 평균 3종에 그친다. 張雲,『誰能煉石補蒼天——清代『紅樓夢』續書研究』, 中華書局, 2013, p.35 참조.

의 개별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른『홍루몽』속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19세기 독서 시장의 면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續紅樓夢』, 하버드옌칭도서관장본.
서경호,『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_____, 이덕형·최건영 역,『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필립 톰슨, 김영무 역,『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張　雲,『誰能煉石補蒼天――清代『紅樓夢』續書研究』, 中華書局, 2013.

<논문>
김예경,「그로테스크 미학」,『영상문화』, 38호, 2021.
_____,「그로테스크, 파생성(破生性)의 미학」,『기호학연구』, 제72호, 2022.
김종철,「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 괴기미 추구와 관련하여」,『판소리연구』, 4집, 판소리학회, 1993.
김준희,「「여우누이」설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와 그 의미」,『한국고전연구』, 57, 2022.
김지선,「志怪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중국소설논총』, 22집, 2005.
정환국,「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한국문학연구』, 36집, 2009.
서유석,「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적 성향과 그 미학」,『한국고전연구』, 23, 2011.
유승현,「돈황강창의 민중적 웃음」,『중국소설논총』, 48집, 2016.
정민경,「'奇'에 미치다 -『虞初新志』에 보이는 명말청초 문인들의 奇에 대한 양상」,『중국소설논총』, 50집, 2016.
최병규,「중국문학 속의 치정의 의의와 가치 연구」,『중국어문논역총간』, 제42집, 2018.
최수경,「19세기 前期 중국 通俗小說 출판의 양상과 소설 독자에 관한 연구」,『중국소설논총』, 제37집, 2012.
최용철,「『續紅樓夢』의 內容과 樂善齋本의飜譯樣相」,『중국소설논총』, 제3집, 1994.
최진석,「생성, 또는 인간을 넘어선 민중: 미하일 바흐친의 비인간주의 존재론」,『러시아연구』, 제24호, 2014.
趙建忠,「紅樓夢續書的原流嬗變及其研究」,『紅樓夢學刊』, 제4집, 1992.
胡衍南,「論『紅樓夢』早期續書的承衍與改造」,『國文學報』, 제51기, 2011.
李勇泉,「秦世忠即『續紅樓夢』作者秦子忱考」,『紅樓夢學刊』, 제1집, 201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續紅樓夢, 紅樓夢, 癡情, 巴赫金, 怪誕
	영문	*Xuhongloumeng*, *Hongloumeng*, Chi-qing(癡情), M. Bakhtin, Grotesque.

On the Writing Strategy of *Xuhongloumeng*

Cho Min-Woo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intricacies of the sequel Xuhongloumeng, which emerged around 1799 amid negative evaluations such as being deemed "preposterous" or attributed to "mid-lower class" writers. Despite these criticisms, the sequel's content has received scant attention. To shed new light on the novel's significance, this article employs M. Bakhtin's theory of "grotesque realism" as a powerful lens. By unraveling the captivating web of Xuhongloumeng's "grotesque" narrative, it seeks to explore its unique ability to "purify" chi-qing(癡情) while simultaneously depicting the multi-faceted layers of class, morality, and religion that characterized the Qing dynasty.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e stereotypes of "mid-lower class" preferences, the vulgar scenes within the sequel are revealed as carefully constructed settings, showcasing the author's mastery of fantastic realism. Ultimately, Xuhongloumeng emerges with a distinct thematic essence from its predecessor, Hongloumeng, offering readers an alternative reading method that celebrates the profound significance of chi-qing(癡情) at all societal levels.

저 자	조민우 / 趙旻祐 / Cho Min-Woo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1.	게재확정일	2023.09.13.